



자연을 사랑하는 기업,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기업,
깨끗한 환경을 창조하는 기업

[주]동양고속건설

동양고속건설은 1968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정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고속버스 운송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건설업에 진출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빠르기 보다는 바르게’ 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외형만 크고 화려한 기업 보다는 견실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정진해온 결과 명실상부한 초우량 대기업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 하에서도 사회 공익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로 전임직원이 화합하여 성실히 노력한 결과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이 튼튼한 기업, 정도를 지키는 기업

“건설산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은 지난 36년간 국내 운송업계와 건설업계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도 건설의 과학화와 합리적 경영을 토대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든든한 밑거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안으로 더욱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재무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건설업체로서는 드물게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경영의 실천으로 더욱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어려울 때 더욱 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양고속건설은 남보다 앞서 실천한 합리적인 경영에 힘입어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IMF 위기

속에서도 11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큰 기업이기 보다는 강하고 알찬 기업경영을 추구해온 결과이기에 그 기업신념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다.

동양고속건설은 삶을 디자인 합니다

가족의 행복, 생활의 자신감, 성공에 대한 확신도 '절대 만족'의 집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생각한다면 아무 아파트나 지을 수 없다. 동양고속건설은 삶을 디자인 하는 행복 파트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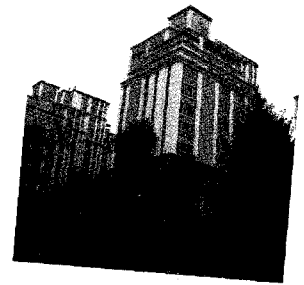
종이 한 장의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동양고속건설의 장인정신, 많은 건물을 짓기 보다는 하나를 지어도 원칙을 지켜 튼튼하게 제대로 짓겠다는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이 없다.

단 1%의 하자도 없이 완벽을 다해 지으려는 노력은 오늘도 끊이지 않는다. 4천만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건설하고 있다.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

동양고속건설은 주택건설사업을 필두로 한 오피스텔, 리조트 등의 건축사업과 도로, 항만, 철도, 환경, SOC 등 토목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 보급과 21세기 환경개선을 위한 신개념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TOYOTA통상과 함께 D&T Motors를 설립하여 LEXUS 공식 딜러 사업으로 업계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문고사업을 통한 문화사업과 국민과 함께하는 최상의 운송서비스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고객밀착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도전과 약진의 21세기 미래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양고속건설의 전 임직원은 하나의 경영목표 하에 정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및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지식경영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하는 동양고속건설.

시대보다 한 발 앞서 가는 전략,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인간존중 경영철학으로 동양고속건설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